20과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일꾼된 교사로써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수고할 수 있는 하루 허락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써 먼저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준행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아이들의 수준과 마음에 맞추어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근에 같이 나누는 이 다니엘서의 내용으로

우리아이들에게 다니엘이 했던 그 모든 신앙이 올바로 전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5장 30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6장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육십 이세였더라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일백 이십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6장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함이었더라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4번째 공과 마지막 공과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입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핵심단어를 만들어봐라

다니엘서를 쭉 읽고나서 다니엘서 핵심단어를 만들어봐라

아이들이 만드는 단어가 있을 거구요 선생님들이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있을 텐데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단어는 뭐 기도, 풀무불과 사자굴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교사입장에서 다니엘서를 쭉 보고 난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핵심단어는

하나님의 주권 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들이 1장부터 쭉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핵심단어를 관련지어서 다니엘서의 중심주제를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넷살의 큰 나무에 관한 꿈 해석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것이 4장 3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쇼 간단하게

4장 32절 보시면

느부갓넷살 왕이 큰 나무에 관한 꿈을 꾸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내용인데 32절 중간에 보게되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나라를 다스리시며

요 부분입니다. 요 같은 의미의 내용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중심주제중의 하나가

인간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서의 중심주제는 불완전한 인간나라는 끝이 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큰 신상에 관한 꿈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 7장에 가서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꾼 큰 신상에 대한 꿈이나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 내용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거다. 그리고 인자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거다.

즉 불완전한 인간나라는 끝이 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제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심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신앙속에서 주

님만으로 살아간다

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친구의 이야기가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꿈 해석도 벽에쓰인 글씨를 해석하는 부분도 그리고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이야기도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신앙 때문에 위기에 직면하지만 위기에 아예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신앙속에서 주님만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중심주제 3번째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1장부터 12장인데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공과는 1장부터 6장 안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게 되는데 6장까지가 전반부구요 7장부터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배경이 일단은 우상숭배지

이방 땅 바벨론이라고 하는 암울한 그 포로 생활이라는 무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경이 되게 어둡죠 배경이 되게 어두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신앙인들이 아름답게 빛을 내는 모습이 1장부터 6장까지 보여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돋보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면 결국은 돋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이야기는 일종의 영웅담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 4개의 공과가 나오니까 사실 거의 장당 1건씩입니다. 장당 1건씩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이 공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1장부터 6장중에 4개의 공과가 나왔다. 상당한 비중인거죠

아이들에게 꼭 맞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인물 중에서 손꼽히라고 그러면 그중에 다니엘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치부도 보면 다니엘 방석 꼭 만들어 주거든요 되게 아이들에게는 친근한 존재고

다니엘 하면 기도하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우리아이들에게 굉장히 더 가깝고 인기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주제가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인데

사자굴 하면 이것과 병행을 이루어서 기억하는 단어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자굴 하면 연결되는 단어가 기도 왜냐하면 기도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해결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생긴 사건이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지키려고 하면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위기가운데서 건저 주신다는 얘기에요

그 출발점이 기도부터 생긴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기도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 기도로 해결을 보다 개인적으로 다니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조심스럽게 내려본 결론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독하다 그러나 의인은 혼자가 아니다.

다니엘은 꽤 고령인 나이까지 고위직 공무원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외롭죠 꽤나 고독했을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3친구도 있었고 무엇보다 항상 자기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고독할거에요 그러나 의인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임과 교제에 나오면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시고 또 주일아침에 함께 모이면

그래도 같은 생각으로 모인 동료선생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말씀의 코드를 맞춰줄 아이들이 있다는 점에서 고독하나 혼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자굴 사건과 이렇게 같이 견줘서 생각해 봐야될 사건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풀무불 사건입니다. 풀무불 사건과 사자굴 사건 다니엘서의 쌍벽을 이루는 사건이다 말할 수 있는데

풀무불 사건은 3친구와 관련된 사건이구요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 개인 혼자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풀무불 사건과 사자굴 사건은 시간차가 상당히 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풀무불 사건에서 왕의 명령이 뭐였냐면 하라~ 그런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자굴 사건에서 왕의 명령이 뭐였냐고 하면 하지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풀무불 사건에서는 왕이 너 이거 해라 라고 강요했다면 사자굴 사건에서는 너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겁니다.

만약에 비신앙적인 것을 하라 라고 요구되었을 때 우리는 안할 수 있어요

제사 때에 가족 제사 때 갔는데 절 하라 싫어요 안해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하게 되는 거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것을 하지 마라 라고 요구되었을 때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움찔 하고 멉춥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전도집회 가지마라 라고 하면 첫날은 눈치보고 안올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날 셋째날 되면서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뒷부분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신앙적인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지마라 신앙적인 것을 하지 마라 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연약한 부분과 두려운 부분 때문에 잠시 멈출 수 있는데 그것이 사자굴 사건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풀무불 사건은요? 가만히만 있으면 됐었어요

사자굴 사건은 과연 이 조서가 내려진 오늘 나는 기도를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내일부터 할까?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면에서는 이 사자굴 사건은 풀무불 사건보다는 좀더 신앙의 힘이 요구되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알게되는 거에요 좀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 사건과 사자굴 사건을 무엇을 요구 받았나? 비신앙적인 것을

하라.

혹은 신앙적인 것을 하지 말라 이 두가지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좀더 얻는 유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5장 끝부분과 6장 처음부분을 읽었습니다.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육십 이세였더라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일백 이십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6장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함이었더라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5장은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5장에서 잔치가 한창 진행중일 때

바벨론 성 밖에는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이 당도해 있었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은 바벨론 도성 안으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있죠?

그 강물의 흐름을 틀어버려요

한참 잔치중인데 그러자 도성안으로 흐러던 유프라테스 강물이 방향을 틀어 버리니까

도성안으로 흐르는 강물의 수위는 점점점점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시간이 지나서 강바닥이 드러난거에요 이 강바닥을 통해서 메데바사 연합군이 성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중일 때

근데 이때 당시에 메데바사 연합군의 지위자가 누구였냐? 고브리아스 라는 사람입니다. 어렵죠 좀?

고부리아스 재미있는건 이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였다는 거에요 바벨론 사람이였던

고브리아스는 과거 벨사살 왕과 가까운 사람이였습니다. 벨사살 왕의 충신중에 하나였는데

과거 벨사살 왕과 사냥을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고브리아스의 아들이 이 사냥에서 공을 세워요 그런데 벨사살이 이것을 시기해서

이 공을 세운 고브리아스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 고브리아스가 어땠겠습니까?

바벨론과 이 벨사살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사의 고레스 장군 밑으로 들어가요 고레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고레스의 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날 이 고브리아스가 이 메데바사 연합군의 지휘관으로

선봉에 슨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냐면

고브리아스가 이렇게 메데바사 연합군을 데리고 낮아진 강바닥을 걸어서 성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벨론군과 마주했겠죠? 고브리아스가 말합니다. 나 알지?

다 자기 부하였거든요 내가 왜 벨사살을 떠났는지 알지?

내가 여기 왜왔는지 이야기 해줄까? 하면서 새 시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했을 겁니다.

봐라 벨사살 왕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백성은 안중에 없다. 새 시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너희들 나 알지 않냐? 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유와 설득을 하게 됩니다.

결국 피흘리는 전투없이 바벨론 왕국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이야기가 생긴겁니다.

이 바벨론 정복의 주인공은 역시 고레스 였습니다. 이 고레스는 자신이 전체 제국의 통치자로 나서기 전에

즉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되기 전에 메데바사 과도 제국이 있었던 거에요

기간이 짧았지만 메데바사 과도 제국이 있었는데 이 메데바사 과도 제국의 왕으로 자신이 등극을 한게 아니라

외삼촌이었던 다리오를 초대합니다.

나이가 62세라고 하잖아요? 외삼촌을 추대하면서 자신은 새로운 제국을 준비한거죠

외삼촌 다리오가 메데바사 과도제국의 왕으로 추대가 되면서 다리오가 잠시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된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이 고레스는

통치권을 이어받아서 페르시아 제국에 초대 왕이 되는거에요

그런데 메데바사 제국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의 역사 세계사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언급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존속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에요

과도 정부 였기 때문에 곧바로 바사제국 즉 페루시아 제국에 흡수 됩니다.

나중에 이게 고고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성경의 진실성 여부가 더 부가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는데 나이 62세 였고 메데 사람이었고

아직 고레스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과도정부에서 있었던 왕과 다니엘의 이야기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왕의 이름이 다리오이고

주인공 이름이 다니엘이요 둘다 성이 다씨네~

둘다 다씨는 아닌 거에요 하나는 다니엘이고 하나는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왠지 같은 성을 가지면 다씨 이 다리오와 다니엘 두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사실은 두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한 왕의 이야기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면 쭉 읽다보니까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생각이 나더라구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왕의 마음은 찢어진거 같았아요

죽음에 던져진거죠? 지옥갈 운명에 쳐해진 우리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합니까? 법 때문인데 법은 지켜져야만 하거든요

살려낼 상위법을 만들 수 없을 만큼 메데바사의 변게치 못할 규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법을 없에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것을 해하지 않는 다른 법을 대속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건데

이 긴박한 상황에서 다리오는 다른 상위법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변개치 못하는 메데바사의 규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께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께 부탁해라 하나님 만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왕

은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깊은 고심과 깊은 고뇌 끝에 대속법을 만드시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름 제목을 붙여보기를 다니엘을 사랑한 왕의 이야기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도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과도제국의 왕이된 다리오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나오냐면요 31절에 보면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상당히 고령이였죠 뭐 꽤 옛날이니까 이때 62세 면요 지금 62세의 청춘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62세는 은장회도 못들어 갑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는 고령이 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치기간이 짧을 수 받게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더 주목해볼만한 사실은 뭐냐면 다리오는 62세였지만 다니엘의 나이는 훨씬더 고령인 80대

초 중반이였다는 얘기에요 되게 나이가 많죠? 다리오도 고령이였지만

다리오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니엘은 훨씬더 고령의 나이였다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

초고령의 80대 할아버지를 총리 3인방의 한명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파격인 사였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왜 이 할아버지를 택하셨을까? 이 할아버지가 그 이유가 6장 3절에 나오는 겁니다.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이 파격인사에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니엘은 유대인이라는 포로신분이였습니다. 개국공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히 고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이들보다 마음이 민첩하고 탁월한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었을까? 어떻게 마음이 민첩하고 탁월한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을수 있었를까?

그 이유는 틀림없이 영적 총명함 때문이였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하고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면서 살면 고령의 나이가 되어도요 총명하죠

가끔 그런 어르신들을 보잖아요 말이 분명하고 상당히 고령이신데 말이 분명하고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성경적이고 신앙적 입니다. 누가봐도 총명해 보여요 지혜로워 보이고

비결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령이 되실텐데 비결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첩하고 총명해질 수 있는 방법

다니엘처럼 살면 됩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살다보니까 고령의 나이에도 이제 같은 해에요

이 해에요 고레스가 왕이되는 최근에 무슨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80대에 깨달은 거에요 예레미야 서책을 책 덮고 있다가 예레미야 펴고

깨달은게 아니구요 말씀 붙잡고 사니까 그 고령의 나이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은 80대에 총명해 진게 아니에요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뜻을 수십년간 지켜온 겁니다. 무슨 뜻? 더럽혀지지 않겠다.

다시 말해 난 깨끗하게 살겠으니~

(말씀영상 짤림)

일단은 급수가 같은 총리들이었다는 얘기에요 총리 3인방 중에 다니엘이 한 명이였으니까?

나머지 두 총리는 바벨론 사람 아니였겠어요? 항상 따돌리고 밥먹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뭔가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을 텐데 전에 살펴본 다니엘의 세친구 이야기 에서도 다니엘의 3친구들을

시기했던 갈대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처럼 다니엘 주변에 있는 총리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왕이 3총리 중에 이 다니엘을 수석총리로 세우겠다고 이야기 하니까

더 이상은 가만히 보고만은 있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히 포로주제에 수석 총리? 유대인 주제에 늙은이 주제에 개국공신도 아니면서 어딜 넘봐?

가만히 있을줄 알아? 가만히 안놔둘 거야 어떻게든 없애버리겠어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졌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들이 시도한게 뭐냐? 업무를 가지고 다니엘을 넘어트리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첫 번째 고난 중에 하나죠

업무로 괴롭힘을 당할 겁니다. 다니엘을 국사를 가지고 넘어트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즉 이들은 다니엘이 맡은 업무에서 빈틈이나 부조리를 찾아내려고 파해친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없었어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있냐? 있었다라는 얘기에요 막 털어봤는데

없어 없어, 다니엘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국정수행이나 도덕성 면에서 아무런 흠이나 실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상활 하면서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7절 여기 잡으시구요 디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폐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말을

하게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하려 함이라. 다니엘

은 아무 틈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대적자들에게 원수들에게 훼방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맨날 훼방거리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변인들에게 혹은 대적자들에게 마귀에게 훼방거리를 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윗의 실수 다윗의 범죄를 기억합니다. 간음죄와 살인죄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무엘하 12장 보십시오

범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단은 뭐라고 이야기 하나 봅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이 일 당신의 범죄 이 일로 인해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크게 훼방할 꺼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죄를 범했지요

그러나 그 죄는 그냥 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원수로 훼방거리 하나 주셨네요

다윗 당신은 사단에게 훼방거리 준겁니다. 범죄는 자기가 하고나서 끝날 수 있잖아요?

징계받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훼방할 수 있는 거리를 준겁니다.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혹은 직장안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부정한 일을 하게되면

그건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이걸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훼방거리를 주는 거고 사단에게 훼방거리를

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게 맞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사단에게 훼방거리를 만들어주었다.

즉 우리의 도덕적 흠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원수 마귀에게

훼방거리를 주는 거다 라는 그 결론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훼방거리를 내어주지 않는 비결을 다니엘의 모습에서 찾아낼 수있다는 거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훼방거리를 내어주지 않는 비결이 나와있는데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이 답이죠? 이는 그가 충성되어 이 부분이 답입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훼방거리가 없었던 이유는 충성 때문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충성하면 정직합니다. 정말 충성하면 깨끗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무엇보다 부지런하게 행동하려 한다는 거에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니 정말 충성하니까 아무틈 아무 허물이 없었던 겁니다.

충성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당연히 정직해지려고 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해야되겠네

좀 의롭게 해야되겠네~

(말씀 짤림)

습관의 특징중 하나가 뭐냐? 때되면 꼭 해야되는게 습관이에요 안하면 어색한 것이 습관입니다.

식사했습니다. 커피 자동으로 생각안하고도 커피 딱 하죠?

안하면 어색해서 그래요 식사하고도 커피안하면 뇌가 막 뭐라고 해요 너 왜

커피 안하냐고

그러니까 어떤 조서가 내려졌어두요 다니엘이 진짜 습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조서와 상관없이 조서를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도 망설이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무릎꿇고 있는

자기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에요

왜?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이 본능에 가까운게 습관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교사할까말까 고민하다 오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습관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진짜 습관이였어요 진짜 습관

그래서 왕의 조서가 별로 영향을 못 미친 겁니다. 왕의 조서도 다니엘의 습관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진짜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형성된 신앙의 습관은 강력한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왕의 조서가 주는 위협을 파괴시켜 버린게 다니엘의 습관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습관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사 봉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습관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다른 동료 교사를 배려하는 것이 습관인 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방해하는 봉사를 어렵게 만드는 동료 교사와 관계를 이간하

는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의 신앙의 습관은 계속됩니다. 진짜 습관이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2부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습관인 교사가 있어요

2부 말씀을 종종 거르는 것이 습관인 교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백프로 신앙 약해져 있잖아요?

백프로 말씀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권면하고 힘을 줘도 힘이 안 생겨요

봉사할 이유와 동기를 찾아내지 못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되는 습관도 있고 독이 되는 습관도 있는거에요

이 알고도 전에 행하는 대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보게되면요 다시 본문 돌아가면요 6장 10절입니다.

특징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방향으로 앉아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었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향했습니다. 파괴된 그곳을 왜 향했냐? 하나님께 회복을 기도한 거에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돌보아 주십쇼 잊지말아 주십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잊지 말아주십쇼 제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갈수 있는 소망을 주십쇼

이 회복을 소망을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에 놀라운 것을 깨달아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입니다. 빨리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절 보시면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같은 해라고 그랬잖아요?

메데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데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리오때 깨달은 거에요 통치 원년에 이 해에요 이해

사자굴 들어갔다 나온 이 해에요 이 해에 깨달은 겁니다

왜 예루살렘과 관련되서 깨달았죠? 늘 거기 보고 기도했거든요

그 곳을 보고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교훈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주신다는 얘기에요

풀어갈 실마리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종종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는

정말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요 다니엘 보세요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했더니 예루살렘에 관한 깨달음을 주신겁니다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날 같으면 닫아놓고 기도했을 꺼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오늘만 ... 왜 일부러 적대세력 자극하면서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님 제가 마음의 창문을 열겠습니다. 이러고 얌체같이 그럴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어 놨어요 비굴하지 않게 내가 비굴하게 숨어서 기도하지 않겠다.

내가 이 비굴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가 훼방받지 않겠다.

이런 마음 먹은 겁니다.

우리는 분위기상 기도 숨어서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회식자리에서 혹은 집에서나 교회서는 식사 기도 많이 하는데

때로는 누구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번개기도 식사기도 딱 떼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티 안내고 기도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찔려요 되게

아 내가 지금 눈치보고 기도했구나. 이게 기도인가? 이게 무슨 기도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세 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결단과 학실한 습관이 아니면 안되는 거에요

하루에 꼭꼭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건 특별한 결단과 확실한 습관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꾸준히 때때마다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망이죠? 용서와 회복에 관한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무릎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꿇고 기도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최대한 낮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박하냐 절박하지 않냐 하는 것은 폼을 보면 앎니다. 자기가 자기 폼을 보면

앎니다. 너 진짜 배게 붙잡고 기도하는거 보니까 내가 진짜 간절하긴 간절한가보다

이런 마음이 들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꿇고 기도했다는 건 절박한 상황에서의 간절한 호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의 조서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기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기에서 더욱 기도를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다니엘의 기도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무리가 있었으니 나머지 두 총리와 방백들이 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나게 발견했습니다.

이야 다니엘 너 정말 잘했다 너 그럴줄 알았어 너 최고야 가자 왕한테

발견하고 데려가는 겁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에 쭉 나옵니다.

왕이 시여 유다 포로, 유다 포로 하나 데려왔습니다.

얘 다니엘 얘가 메데와 바사의 변개치 않는 규례를 어겼나이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다른 시기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왕의 규례를 어겼나이다.

왕이시여 얘 오늘 바로 사자굴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이 다니엘을 총리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총리인데 총리라고 이야기 하지 않고 유다 포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뭐죠? 눈의 가시였다는 거에요 눈의 가시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철컥 덜커덕 마음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아차 싶었을 겁니다. 왕은 근심했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보십시오 6장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한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저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왕은 다니엘을 죽음에서 건저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 계속 궁리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는 져가는 거에요 해 지기 전에 죽여야 되거든요 해지기 전에 사자굴 넣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해가 져가고 있는겁니다. 아..어떻하지 해가 지기전에 법은 집행되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넣어지는 겁니다.

15절과 18절 보십쇼 15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으매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쳐서 봉하였으매

이는 다니엘을 처치 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악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반대자들은 송사했죠 저 아무개는 왕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겼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죠 그쵸? 하나님께서 도장 치셨죠? 저 아무개는 심판과 당연 지옥형벌입니다. 못피합니다.

송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떻하지 어떻하지 구원해 낼 방법은 없을까?

이 왕은 하나님께 다니엘의 운명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네 손에 달려있다

네가 사자들의 입을 봉해라 네가 사단의 음부의 권세를 딱 틀어라 이겨라 눌려라

예수님께 부탁한 거에요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엿 볼 수 도 있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냐? 19절 보십시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튿날 새벽에 달려갔다는 것을 봐서 대략 해질녘부터 새벽녘까지 하게되면 8시간 정도를 계산을 합니다.

다니엘은 8시간 정도 사자굴에 갇혀있었습니다. 왕은 뜬눈으로 밤을 지세운 다음에
세벽 되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발 하는 마음으로 이때 법이 어떻냐 하면요

죄인이 당연히 죽음이 예견되는 형벌을 당하면서도 밤이 지났는데 아침까지 살아있으면요

사면 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사자가 혹 너를 물어뜯었다 할지라도 너 아침까지만 버텨줘라

그럼 너 사면이다 그래서 살려낼 수 있는 최단 시간을 벌기 위해 아침이 되자마자 간거에요

그 만큼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이른 시간에 찾아간 거에요

혹시나 살아있다면 죄에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의 일생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왕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밤새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 살아 있을것만 같았거든요

왜? 다니엘의 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희망을 놓지 않고 끊을 놓지 않고 아침에 일찍가서 굴옆에 가서 슬피울며 부르는 겁니다.

다니엘아 너 살아있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지 않았겠느냐?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살아서 대답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21절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21절 보시죠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원망안하는 거에요 왕을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부분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봉하셨으므로 나의 하나님이 이미 봉하셨으므로 이걸 어떻게 알았죠

사자굴에 들어본 사람만 확인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들어가보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는 거 목격도 할 수 없고 감히 증언도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들어가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고 들어가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고

들어가 봤기 때문에 지킴 받을 수 있다는 지킴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하는

자신감 넘치는 간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에요 우리도 때때로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던져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야~ 여기서 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구나

그리고 그 위기에서 나오죠 멋들어지게 간증합니다.

저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보니까 천사가 먼저 와있었습니다.

그거 희안하데요 사자들의 입을 봉해놓고 사자들을 어린양처럼 얌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알았습니다. 아 당연한 거구나 내가 만약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내가 이 멋진 하나님의 광경을 못봤겠구나 바로 기도했을 꺼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온게 감사합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하신일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미 나를 지켜주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지켜주시는 현장을 두눈 똑똑히 보고 목격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기도 했던 다니엘은

들어가서 더 기쁜 마음으로 기도 했다는 것도 알게됩니다.

신앙 때문에 던져지면 보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에요

우리 풀무불에 던져진 세친구와 유사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에 건져주신 것이 아니죠? 고난 한 복판에 뚝 떨어졌을 때

건저주신 겁니다. 보통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러나 고난이 엄습해서 뚝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건

아 하나님은 고난 한 복판에서 해주시는 일이 있다. 떨어진 다음에 건져주시는 일이 있다.

믿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엔 악한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못만지게 해버린 거에요 만지려면 천사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통과해야만 그 악한 것이 다니엘을 만질 수 있었는데

그 악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속아래 있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보호와 감싸줌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23절 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결론이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뒷 부분 33절에 어떻게 결론이 나있냐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믿음장에 다니엘의 믿음을 이렇게 결론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이 뭐냐? 천사의 손길이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은 다니엘의 믿음 자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건저낸건 너의 믿음 자체였다

고

믿음이 살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소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죠?

왕이 명령을 내려서 참소한 사람들과 가족들을 다 오라고 한다음에

던져 넣어 버립니다. 던져 놨더니 사자들의 봉한 입이 풀립니다. 풀리자 떨어지는데 사자도 뜁니다.

떨어지고 뛰올라서 공중에서 낚아체서 뼈까지 으스러 트려서 조각조각 씹어 삼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에요

그게 참소자들의 최후고 무저갱에 떨어지는 사단 마귀의 최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간증이 담긴 조서가 내려지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이에 다리오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찌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신앙 하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형통하

였더라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하던 신앙의 비결이 무엇이였습니까? 기도였어요

다니엘의 이 기도가 다니엘을 형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4장의 야베스의 기도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다. 형통하게 해주셨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도는 형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다니엘 하면 기도하는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다 기도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6장에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관련해서 다니엘의 뜨거운 기도의 습관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이야기를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도에 대해여 신앙에 대하여 좀 더 깊게 생각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